

濟州島南部語의 硬音化에 對한 研究

金 光 雄

I

濟州島 地域語가 가지는 體系와 그 意義는 國語學의 많은 學者들로부터 그 重要性和 意味를 認定받아 왔으며, 이 地域語에서만 찾을 수 있는 音韻現象과 特殊方言에 이르러서는 陸地語에서 볼 수 없는 特異한 境界를 이루어 하나의 獨立된 方言群으로 그 位置를 차지하여 왔다.

그러나 地理的 여건 등으로 他地域의 研究보다 沈滯를 거듭하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일은 나날이 이 地域語의 옛 모습이 쇠멸되고 있음이다. 바라는 것은 더 많은 理論研究가 竝行되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속히 이루어져 이 地域語에 묻혀 있는 文化的 遺産인 寶玉들이 그 眞價를 발휘하여 國語學의 理論 정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音韻現象 가운데 그 特徵이 두드러져 여러 方言群에 따라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그 性向은 연령층에 따라 달라져서 國어 교육 및 그 表記에 混亂마저 야기하고 있는 破裂音을 비롯한 硬音化現象을 中心으로 살펴 보려 한다.

濟州島에서의 硬音化現象에 關한 研究는 몇몇 학자에 의해 概觀的으로 지적 되었으나¹⁾ 그 實例에 內在한 共通的인 音韻規則 등을 集約的으로 考察하지 못하고 音韻現象의 하나로 부분적인 고찰만을 한 느낌이 있어, 그 동안의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좀더 體系的인 音韻規則을 生成하려고 한다.

1) 李崇寧(1960), 濟州方言의 形態論의 研究, 「國語學論攷」, pp.279~392.

金亨奎(1980), 濟州島 方言, 「韓國方言 研究」, pp.412~428.

玄平孝(1961), 「濟州島 方言 研究」, 第一輯 資料篇.

資料의 수집은 濟州島 南部地域을 中心으로 60歲 以上の 提報者²⁾를 選定하여 2次의 검증을 行하였으며, 그밖의 자료로는 金亨奎 「韓國方言研究」,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 石宙明 「濟州島方言」, 朴 容후 「제주방언연구」를 참조하였다.

II

一般的으로 硬音化現象이라 함은 基底音韻表示上的 非氣息弱音이 非氣息強音으로 變形되는 것을 칭하고 있다. 現代 國語의 저해음 (obstrudent)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 a) 平音: /p/, /t/, /k/, /č/, /s/
 b) 硬音: /p'/, /t'/, /k'/, /č'/, /s'/
 c) 激音: /p^h/, /t^h/, /č^h/, /k^h/

이 세 가지 形態上的 차이점을 보면³⁾ 平音은 輕氣息音이요, 硬音은 無氣息音 또는 非氣息音, 激音은 重氣息이라 하였고 平音을 弱音 (lax, lenis), 硬音과 激音을 強音 (tense, fortis)이라 하여 이들의 音聲의 差異를 氣息度 (degree of aspiration)와 強度 (tensity)의 觀點에서 區別하고 있다.

이들 세 音의 辨別的 差異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 a) /p, t, k, č, s / : $\left[\begin{array}{l} - \text{ aspirated} \\ - \text{ tense} \end{array} \right]$
 b) /p', t', k', č', s' / : $\left[\begin{array}{l} - \text{ aspirated} \\ + \text{ tense} \end{array} \right]$
 c) /p^h, t^h, k^h, č^h / : $\left[\begin{array}{l} + \text{ aspirated} \\ + \text{ tense} \end{array} \right]$

- 2) 報者: 高英華 (71 世 · 서귀포 서호리), 梁壽生 (74 世 · 서귀포 보목리)
 吳勝道 (79 世 · 서귀포 서호리), 吳昌熙 (70 世 · 서귀포 토평리)
 吳 正 (79 世 · 서귀포 보목리), 金正삼 (67 世 · 서귀포 토평리)
 吳化석 (54 世 · 남원읍 남원리),
 調査者: 梁찬선 (국문과 4 年), 兪계철 (국문과 3 年)
 朴正숙 (국문과 3 年), 姜明희 (국문과 3 年)
- 3) 金진우 (1965), On the Autonomy of the Tens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Stops), *Word* 21. pp.239~359.
 전상범 (1976), 現代國語에 있어서의 된소리 현상, 「언어」 1 卷 1 号, pp.22~35.
 金영승 (1972), 된소리의 음성자질과 변별자질, 「한글」 149 号, pp.5~41.

위의 변별 자질이 보여 주듯이 非開放閉鎖音(unreleased stop)이 조음될 때 口腔內의 壓力은 增大되는데, 이 때 完全한 폐쇄나 협착이 이루어지는 자질을 갖춘 [+obstruent]가 연결될 때 口腔內에서 증대된 壓力은 계속 증대되거나 상당한 壓力이 남게 되어 조음 기관이 긴장된 狀態로 유지되는데, 이 緊張性을 띤 채로 그 장애음을 開放하면 [+tense]의 資質을 갖춘 음이 生成될 것이다.

위와 같은 硬音化現象을 說明하는 金榮起⁴⁾의 네 가지 규칙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니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軟性 장애음이 비개방 폐쇄음 뒤에서 硬音化되는 것을 非開放後 硬音化라 한다 (Post-Unreleased Fortition).

/pap-to/ : 'rice also'
pap-to : Obstruent unreleasing
[pap=t'o] : post-unreleased Fortition

2) 漢字語境界 硬音化 (Sk-Boundary Fortition) 規則의 적용이 불가능한 복합어의 경우 t-삽입으로 경음화한다.

/pomɿpi/ 'spring rain'
pomɿpi : t-Epenthesis
pomt^hpi : Obstruent unreleasing
pomt^hp'i : post-Unreleased Fortition
[pom p'i] : post-Noncontinuant C-Deletion

3) 側音 “ㄱ” 뒤 漢字語境界符號 “!”를 사이에 두고 [-son, +cor]의 資質을 가진 장애음(ㄷ, ㅅ, ㅌ)이 오는 관형사 경계 경음화 (Modifier Boundary Fortition).

/pa! ǰən/ "Growth"
[pa! ǰ'an]

또 Sk-Boundary Fortition을 다음과 같이 규칙화하고 있다.

$\left\{ \begin{array}{l} -son \\ +cor \end{array} \right\} \rightarrow [+tense] / ! \underline{\hspace{1cm}}$

4) 未來를 나타내는 用言 “ㄱ”, “을” 밑에서 體言의 첫 분절음이 硬音化되는 관형사 경계 경음화 (Modifier Boundary Fortition)

[-son] → [+tense] / l =

5) 동사 및 형용사의 어간 “ㄴ”이나 “ㄷ”의 첫 분절음이 硬音化되는 動詞語幹境界硬音化 (Verb Stem Boundary Fortition)

[-son] → [+tense] / [+nas] &

4) 김영기 (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p.131~178.

本稿에서는 위와 같은 本質的인 特徵을 바탕으로 하여 그 現象에 나타낸 共通的인 內容을 살피면서 同時에 濟州 地域語의 語頭子音의 硬音化, 激音의 硬音化現象을 고찰하려고 한다.

III

現代國語의 硬音化現象은 [+obstruent]가 音韻論的, 形態論的 條件에 關係가 없이 硬音化되어 가고 있는 인상마저 주고 있으며, 硬音化의 實現은 老年層보다 青年層에, 中部方言보다 南部方言에 活潑하게 나타나고 있다. 中部方言에서는 硬音化現象이 語中에 국한되고 있는 듯하나 南部方言에서의 硬音化現象은 語頭に까지 一般化되어 가고 있다.⁵⁾

濟州南部語의 硬音化 또한 여러 層位의 形態로 活潑하게 展開되면서 強烈하게 表現됨을 볼 수 있으니, 先行 폐쇄음과 連接하여 이어지는 平音과의 사이에 휴지(pause)가 없는 이른바 緊密連接(close juncture)이나 移行(transition)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後行하는 平音은 硬音化하고 있다. 이같은 現象은 (1)의 例에서 볼 수 있다.

(1)

- a. 갑갑히 : ㄱㄱ비
- 맡기다 : ㅁ끼다, ㅁ끼다
- 새색시 : 새 각씨
- 적쇠 : 적썩
- 석쇠 : 석썩
- 염구리 : 염갈리
- 가락지 : 까락찌
- 욕설하다 : 악썰허다.
- 늑대 : 늑때
- 막대 : 막때
- 걱정 : 걱쟁
- 색동저고리 : 색똥저고리, 썩똥저고리.
- 각시 : 사각씨.
- 옥신각신 : 옥썩각썩.
- 혹시 : 혹씨.
- 쑥덕쑥덕 : 쑥뻑쑥뻑.
- 북적북적 : 북쩍북쩍, (ex) 북쩍북쩍 꺾엄져.

5) 金亨奎, Op. cit., p.351.

Samuel E. Martin(1954), *Korean Morphophonemics*, p.55.

- 접시 : 접씨, (ex) 이 접씨에 꺾쌀 덜어노라.
 답답하다 : 다답허다.
 쉽사리 : 쉽싸리.
 굵실굵실 : 굵셀굵셀, (ex) 굵셀굵셀 스정허쿠다.
 갑자기 : 갑째기
 짚수세미 : 짚쑤세
 덩개 : 덕개, 덩개 (ex) 프리 아잠시메 포 덕끄라.
- b. 부엌도 더럽다 : 부엌또 더러워서라. (ex) 여정이 게울린 부엌또 더러워서라.
 먹도 없다 : 먹또 어따.
 꽃도 많다 : 꽃또 만타. (ex) 꽃또 하영 싱것찌.
 집도 많다 : 집또 만타. (ex) 집또 하영 지섯찌.
 밥도 먹고 떡국도 먹어라 : 밥또 먹꼭 떡국또 머그라.
- c. 작다 : 죽따
 먹다 : 먹따
 먹고 : 먹꼬
 먹소 : 먹쏘, 먹읍싸.
 먹지 않겠다 : 먹찌 안 허키여.
 먹기가 싫다 : 먹찌 실뜨다. 먹꾸정 안 허우다.
- d. 얼룩소 : 어럭쑤
 목구멍 : 목꼬망
 색종이 : 색쑹이
 부엌바닥 : 부엌빠닥
 밥그릇 : 밥끄른
 밥사발 : 밥싸발
 집뒤 : 집뻬 (ex) 집 뒀에 강낭.
 박쥐 : 박쑤
 입버릇 : 입빠릇 (ex) 입살도 너무 독해라.
 집주인 : 집쑤연
 목덜미 : 목뻬미
 앞밭 : 압빨
 옆길 : 엽질
 앞개울 : 널꿀, 널꿀챙이
 짚신 : 짚션
 만사위 : 만싸위
 발뚝 : 반뚝
 옆집 : 엽쩍
 동녘집 : 동녁쩍
 서녘집 : 서녁쩍

- 아랫집 ; 알력집
 윗집 : 우녀집
 떡쌀 : 떡솔
 떡가루 : 떡갸루, (cf) 쌀갸루, 조코루
 솔밥 : 손밥, 손머밥
 밀줄 : 미쭈 (ex) 미쭈 그릇 그섬저.
 반고랑 : 반꼬랑
 벗섬 : 나룩섬, 나룩섬
 벗질 : 나룩질, 나룩질
 벗단 : 나룩단, 나룩단
 e. 손가락 : 수까락, 쭈갈
 옆대이 : 엽뎡이
 옆구리 : 엽꾸리, 옆갈리
 밀둥 : 굽똥이, 굽뎡이
 입사귀 : 입싸귀
 흑부리 : 흑뎡이, 흑뿌리
 녀두리 : 녀뚜리
 국거리 : 국꺼리

(1, a)는 單一形態素에서 硬音化를 보인 것이며 (1, b)는 曲用에서 (1, c)는 活用에서 (1, d)는 複合語에서 (1, e)는 派生語에서 硬音化를 보인 예이다.

이와같이 先行閉鎖音과 平音과의 연결에서 그것이 單一形態素나 曲用이나 活用은 勿論 複合語에 있어서도 後行하는 平音が 硬音化하는 音韻現象은 아주 一般的인데, 이는 內破音 다음에 오는 音素는 喉頭緊張을 同伴하게 되는데. 이 후두 긴장 뒤의 平音が 硬音으로 發音된 결과이다. 이것을 規則化하면 다음과 같다.

$$(2) \left[\begin{array}{c} + \text{obs} \\ - \text{tense} \end{array} \right] \rightarrow [+ \text{tense}] / \left[\begin{array}{c} C \\ + \text{stops} \end{array} \right] \underline{\quad}$$

(모든 平音은 폐쇄음 다음에서 硬音化한다)

그러나 (2)에 나타난 音聲的現象을 보면 閉鎖音인 平音, 激音, 硬音인 /p/, /pʰ/, /pʷ/, /tʰ/, /tʰʷ/, /tʰʷ/, /k/, /kʰ/, /kʷ/가 閉音 /p/, /t/, /k/로 나와 폐음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發音器官의 조음시 발음 기관의 접촉으로 生成된 폐쇄점 뒤에 생기는 壓力이 다음에 오는 平音의 硬音化를 유발한다고 하면, 硬音化는 平音 앞의 모든 閉鎖音이 音韻表示上的 表面構造에서 閉音化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규칙 (2)보다는 규칙 (3)이 위의 音聲的作用을 더 잘 표현한다고 할 것이다. 이같은 觀點에서 濟州南部語의 硬音化規則을 生成하면 다음과 같다.

$$(3) \left[\begin{array}{l} +\text{cons} \\ -\text{son} \\ -\text{tens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asp} \\ +\text{tense} \end{array} \right] / \text{[-rel]} \text{ ____}$$

(모든 聲母는 閉音 뒤에서 硬音化한다)

더욱 이 硬音化規則이 實現되는 데는 몇 개의 부수적인 規則의 적용이 並行되어야 하니, 규칙 (3)은 그 적용 순서에 있어서 (4)와 같은 子音中和規則과 閉音化規則을 後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濟州南部語의 子音中和現象은 다음의 例에서 볼 수 있다.

- (4) 부엌 : 부엌
 낫, 낫, 낫, 낫 : 낫
 히읏 : 히읏
 종네 : 존네
 종소 : 조쑤다
 꽃밭 : 꼰밭 > 꼬밭
 닭장 : 독짱, 독망
 밭다 : 복마
 밭지 말라 : 밭저 말라

이와 같은 子音中和現象은 (5)와 같은 규칙으로 表示할 수 있다.

$$(5) \left[\begin{array}{l} +\text{cons} \\ -\text{son}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obs} \\ -\text{strid} \\ -\text{tense} \end{array} \right] / \text{____} \{ \text{C} \}$$

(음절말의 무성 저해음들이 그것만으로 끝나거나, 다른 자음 앞에서 모두 p, t, k 세 자음 중 어느 하나로 中和된다).

위에서 보는 子音中和現象 (5)는 (3)보다도 于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3)보다 그 적용 순서에 앞서고 있는 濟州南部語의 破裂音閉音化現象은 다음과 같다.

- | | | |
|-----------|------------------------------|-------------------|
| (6) “얼룩소” | /əl luk + so/ | [ə rəkʔ - s'ʌ] |
| “부엌바닥” | /puək ^h + pa tak/ | [puəkʔ - p'adək] |
| “앞밭” | /ap ^h + pa l/ | [apʔ - p'al] |
| “옆길” | /jəp ^h + ki l/ | [jəpʔ - k'il] |
| “동녘집” | /toənyək + čip/ | [toəjakʔ - č'ipʔ] |
| “떡마루” | /t'ək + k'aru/ | [t'əkʔ - k'aru] |

6)의 예는 모든 閉鎖音은 平音 앞에서 脣音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脣音의 同器音音 (homorganic)인 激音, 硬音 앞에서도 閉音化하고 末音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亦是 脣音화하고 있다.

이같은 脣音화 현상을 (7)과 같은 규칙으로 要約할 수 있다.

$$(7) \begin{bmatrix} +\text{cons} \\ +\text{obs} \\ -\text{strid} \end{bmatrix} \rightarrow [-\text{rel}] / \text{---} \begin{bmatrix} [+ \text{cons}] \\ -\text{son} \\ \# \end{bmatrix}$$

(모든 脣音은 저해자음 앞에서 또는 終聲으로 끝날 때에는 閉音化한다.)

위에서 본 규칙에 의하여 (1,a) (1,b) (1,c) (1,d)에서 提示된 例를 하나씩으로 하여 脣音 다음에서 나타나는 硬音化現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8) /jəp ^h +kalpi/	/puək ^h +to/	/mok+kuməŋ/	—	기저음운 표시
iəp kalpi	puək to	_____		자음 中和 규칙
jəp ^h kalpi	puək ^h to	mok ^h kuməŋ		脣音화 규칙
jəp ^h k'alpi	puək ^h t'o	mok ^h k'uməŋ		경음화 규칙
[jəp ^h k'alpi]	[puək ^h t'o]	[mok ^h k'uməŋ]	—	음성 표시

위에서 우리는 脣音 뒤에서의 平音의 경음화 현상을 濟州南部語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 現象은 脣音 以外の 저해음 (obstruent)인 破찰음, 마찰음, 활음 /h/ 뒤에서도 生成되고 있음을 (9)의 例에서 볼 수 있다.

- (9) a. 빗장:빈장
 벗기다:베끼다
- b. 꽃밭:꽃뻘, 고장밭
 늦잠:늦좁 (ex) 늦좁 잠져.
 짓소:질췌, 질쏘 (ex) 짓췌 어서남져.
 꽃가지:꽃까지, 꽃까쟁이
 닳ضل:달ضل
 옷감:온깁슴, 온깁음
 꽃바람:꽃뻬름
 옷슴:온췌
 솟더미:솟뻬미
- c. 덧저고리:덜쩌고리
 짓밧다:질뻬다
 덧셈:덜셈
 맛사위:말싸위

- 웃자락 : 움짜락
 웃감 : 움갓슴
 멧장이 : 멧쟁이
 d. 종소 : 조쑤다
 농소 : 남쑤다
 e. 녕다 : 너타
 종다 : 조타
 종고 : 조코
 농다 : 노타 (ex) 이래 노추.

(9.a)는 單一形態素, (9.b)는 複合語에서, (9.c)는 派生語에서 (9.d)는 활음 /h/ 뒤에 例外 없이 硬音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硬音化하는 平音을 先行하고 있는 말참음, 파찰음, 활음 /h/는 音聲적으로 閉音 /t/로 변하고 있다.

앞의 子音閉音化現象에서 보았듯이 平音의 硬音化는 閉鎖點 뒤의 壓力에 기인한다고 하면 말참음, 파찰음, 활음 /h/ 다음의 脣음화가 硬音化보다 먼저 生成되고, 이렇게 하여 生成된 脣음의 壓力이 後行하는 平音을 硬音으로 바꾼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앞의 子音中和現象에 의하여 /č, čʰ; s, sʰ; h/는 語尾에서 또는 子音先行的 音節 앞에서 t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中和現象中 이것만을 獨立시켜 t-대체 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設定할 수 있다.

$$(10) \quad \left\{ \begin{array}{c} [+strid] \\ h \end{array} \right\} \rightarrow t / _ \left\{ \begin{array}{c} C \\ \# \end{array} \right\}$$

(10)에 의해 도출된 t는 脣음화 규칙에 의해 /tʰ/가 되며 이 脣음 /tʰ/는 後행하는 平音을 硬音化시키고 있음을 본다. 그 生成過程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0)	/təs+čə kori/	/nɪč+čam/	/pis+ča/	/čoh+so/	——기저 음운 표시
	tət čə kori	nɪt čam	pitča	čotso	t-대체 규칙
	tətʰ č ə kori	nɪtʰ čam	pitʰča	čotʰso	脣음화 규칙
	tətʰ čʰ ə kori	nɪtʰ čʰ am	pitʰčʰa	čotʰ sʰo	경음화 현상
	[tətʰ čʰ ə kori]	[nɪtʰ čʰ am]	[pitʰ čʰ a]	[čotʰ sʰ o]	——음성 표시

그러나 (9.e)의 “녕다, 종다, 종고, 농다” 등은 유기음화하여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활음 /h/가 中和現象에 의해 /t/로 대체되기 전에 /h/ 뒤에 연결된 平音이 먼저 유기음화함으로써 硬音化規則의 적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결과이다.

IV

濟州南部語에서 有聲音 終聲 다음에 平音이 硬音으로 變하는 現象이 있다. 이를 [-obs] 라는 變別적 字질에 의해 區別할 수 있지만 [-obs]는 活音 /w/, /j/를 포함하므로 硬音化되는 平音을 先行하는 [-obs]는 이를 제외해야 하므로 平音이 硬音化에 關連된 [-obs]는 비음, 유음, 모음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 例에서 [-obs] 다음에서 單一形態素의 둘째 以下의 音節이 硬音化됨을 볼 수 있다.

(11) a. 흥백 : 흥백

금작스럽다 : 꺾스럼다
기름기 : 지름끼
붙임성 : 부침쌩
귀염성 : 귀염쌩, 귀연쌩
믿음성 : 미듬쌩
어름장 : 어름짱
구름장 : 구름짱
웃음거리 : 우슴꺼리
숨결 : 숨꺨, 숨꺨
잠결 : 줌꺨, 줌꺨
꿈결 : 꿈꺨

b. 번개 : 번꺨, 꺨꺨

문득 : 문꺨
찬장 : 차꺨
모누 : 문꺨, 꺨꺨, 꺨꺨
반꺨 : 빈꺨, 꺨꺨
문간 : 문꺨, 대꺨꺨
눈발 : 눈꺨
손가락 : 손꺨꺨, 손꺨꺨꺨
손짓 : 손꺨
안감 : 안꺨꺨

c. 핏기 : 꺨꺨

헛간 : 헛꺨
뒤효 : 뒤효 (cf) 칩꺨

인사성 : 인사쌩
 빗발 : 빔쌀
 핏발 : 핀빨
 땃줄 : 땃쥬
 치마자락 : 치매짜락
 햇살 : 베힐, 뵤쌩 (ex) 뵤쌩 독허다.
 가득하다 : ㅁ뜩허다
 쉬술다 : 쉬쑤다, 쉬싸다
 터세다 : 터쌩다
 고삐 : 꼬뵤기, 고뵤 (ex) 쇠고뵤기, 쇠고뵤
 뚜껍 : 뚜겅이 (ex) 손뚜겅이, 항뚜겅이
 바짝 : 보쌩

- d. 물기 : 물끼
 참을성 : 참을쌩
 구들장 : 구들똥
 물결 : 물쩨
 밭짓 : 밭쩨
 이불감 : 이불꺄슴
 걸쇠 : 걸뵤, 걸쌩
 괄시 : 괄쌩
 날자 : 날짜
 멀겅다 : 멀겅허다
- e. 방긋 웃다 : 방꺄웃다
 자물쇠 : 통뵤
 외양간 : 외양꺄
 대장간 : 대장꺄, 불미칩

이같이 單一形態素 內에서도 硬音化가 강하게 生成되고 있으며 “방긋, 문득, ㄱㄷ” 등 표준어에서 ㅈ음으로 표기되고 있는 예들도 경음으로 발음되고 있음은 이 音韻現象의 變化方向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obs]인 용언 어간의 말음 /m/, /n/ 아래서 ㅈ음이 硬音化된 예를 볼 수 있다.

- (12) “검다” : /kəm+da/ [kəmd'a]
 “앉지” : /anč+či/ [anč'i]
 “삼지” : /sam+či/ [samč'i]
 “삼지” : /salm+či/ [salmč'i]
 “안다” (知) : [anda]
 “간다” (去) : [kanda]

(12)에서 용언의 어간말 자음이 비음인 /m, n/인 경우 후행하는 받침이 硬音化하고 있다. 그러나 <안다>, <간다>의 表面表示上的 /n/은 어간말 /n/가 아니라 /-nin-/의 變形인 /n/이므로 후행 받침을 硬音化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예에서 보듯 /m, n/가 語幹末子음이 아닌 경우는 硬音化가 生成되지 않는다.

- (13) 감각 : [kamgakʔ]
 담당 : [tamdaʔ]
 감사 : [kamsa]
 감정 : [kamčəʔ]
 건강 : [kəŋgaʔ]
 선전 : [sənčən]

- (14) 감(柿)+도 : [kamdo]
 산(山)+도 : [sando]
 강(江)+도 : [kaʔdo]
 달(月)+도 : [talto]

그러므로 用言의 語幹 /m/ /n/ 다음에 받침의 장애음을 頭音으로 하는 活用語尾가 연결될 때 이들이 硬音으로 바뀐다. 이 現象을 規則化하면 다음과 같다.

$$(15) \left[\begin{array}{l} + \text{ cons} \\ - \text{ son} \\ - \text{ tens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 \text{ asp} \\ + \text{ tense} \end{array} \right] / [+ \text{ nas}] \& \text{-----}$$

그러나 /n, m/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使動, 被動의 接辭 /-ki-/나 명사형어미 /-ki/가 연결될 때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 (16) a. 옮기다 > 뺑기다
 안긴다 > 앵긴다, 안찌다
 감기다 > 가마지다, 곱지다 (ex) 곱점찌.
 숨기다 > 숨지다, 곱지다
 옮기다 > 곱지다
- b. 숨기 : [kopk'i]
 안기 : [ank'i]
 옮기 : [kumk'i]

(16.a)에서 /-ki/는 /-gi/, /-či/ 등으로 유성음화, 구개음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사형어미 /-ki/가 연결될 때는 硬音化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5)의 규칙에다가 (17)과 같은 제약을 가해야 할 것이다.

(17) { where [$\begin{matrix} + \text{obs} \\ - \text{tense} \end{matrix}$] } K of stem formative ki }⁶⁾

(동사 어간말 m,n 뒤의 연음 중 ㄱ은 stem formative “-기”가 아니어야 한다.)

이와같이 (17)과 같은 제약을 가진 경음화 규칙 (15)에 의해 生成된 硬音化의 도출 과정을 보면, 어간 다음에 /t/가 삽입됨으로써 /t/는 폐음화 규칙에 의해 /tʔ/로 변화하며, 폐음 /tʔ/는 규칙 (15)에 의해 硬音化된다. 이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18) /kəm+ta/	/an+ko/	/sami+či/	———— 기저 음운 표시
————	————	samči	어간 자음탈락 규칙
kəmt ta	antko	samtči	t-삽입규칙
kəmtʔ ta	antʔko	samtʔči	폐음화규칙
kəmtʔ t'a	antʔk'o	samtʔ č'i	경음화 규칙
kəmt'a	ank'o	samč'i	자음군 단순화 규칙
[kəmt'a]	[ank'o]	[samč'i]	———— 음성 표시

(18)에서 사용된 語幹末子音脫落 規則은 다음과 같다.

$$\left[\begin{matrix} C \\ +\text{cor} \end{matrix} \right] \rightarrow \phi / \left\{ \begin{matrix} C- \\ -C \end{matrix} \right\} \text{ — } \left\{ \begin{matrix} \# \\ C \end{matrix} \right\}$$

어간말 重子音의 두번째 자음이 [+cor]일 때는 [+cor]을 削除하며 [-cor]일 경우에는 두 자음 중 앞의 것을 삭제하는 語幹末子音脫落的의 10가지 경우를 말한다.

平音의 硬音化는 濟州南部語에서는 (18)와 같이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서도 일어남을 볼 수 있다.

(19) 갈수록 길이 멀다 : 갈수록 질이 멀다.

할수록 어렵다 : 공부도 ‘할수록 어렵는 거여.

갈지 모르겠다 : $\left\{ \begin{matrix} 가질 짜 말 짜 모르켜. \\ 가질 떠 말 떠 모르켜. \\ 가질 티 말 티 모르켜. \end{matrix} \right.$

살 집이 없다 : 살 째 어성 늬이 집 빌엄 사람십주

먹을 것 없니? : 먹을 꺼 어시냐? 흥꿈도라.

6) 황규직 (1980), 韓國語에서의 硬音化現象, 「人文科學論叢」 12輯 (건국대), p.92.

冠形詞形語尾 /-을(르)/ 다음에서 경음화되고 있음은 /-을/의 추상적 기저형인 /-ilt/은 15c에 이미 存在하는 것으로 다만 그 결합이 現在 그 表面構造에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ex) 니르고셔 勸배 이셔도(訓民註).
 구든 城을 모르샤 諳길히 입더시니(龍 19).
 지브로 도라오십제(龍 18).
 바른톨 건너십제(龍 18).
 퍼디 문흠노미 하나라. (訓民註).
 後宮에 드르십제(龍 50).
 마름디나라(蒙山 35).
 不: 불 日: 일
 脫: 탈 八: 팔

<-을>은 15c 당시에도 뒤에 오는 [-son]의 音素를 硬音으로 바꾸는 形態素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現代 濟州語에서도 <-을>에는 15c의 <-을>의 기저형을 갖고 있어 다음에 오는 [-son]의 音素와 結合하여 硬音이 實現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규칙화 하면 다음과 같다.

$$\left[\begin{array}{l} + \text{ cons} \\ - \text{ son} \\ - \text{ tens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 \text{ asp} \\ + \text{ tense} \end{array} \right] / _ _ = _ _$$

(관형사형 /-을/ 다음의 [-son]의 자질을 가진 ㅈ音은 硬音化한다)

이같은 규칙에 따라 硬音化의 도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mæk + ilt + kəs/ 기저 음운 표시
 mækilt kət 중화 규칙
 mækilt kətʰ ㅈ음화 규칙
 mækilkətʰ 어간말 자음 탈락 규칙
 mægilkətʰ 자음 유성음화 규칙
 mægilkʰətʰ 경음화 규칙
 [mægilkʰətʰ] 음성 표시

濟州 地域語의 複合語에서 비저해음 뒤의 硬音化現象은 一般的인 現象임을 다음 例에서 볼 수 있다.

- (22) a. 땅속 : 땅쏘굽
 성냥불 : 성냥뿔, 성냥뿔
 종소리 : 종소리
 장독 : 장뚝
 등불 : 등뿔 (ex) 등뿔 싸라.
 나뭇가지 : 낭까지, 낭까쟁이
 창줄 : 창쭈
 무명실 : 미녕실
 창구멍 : 창꾸멍
 병값 : 팽갑, 뺑갑
 나뭇잎 : 낭썰
 나뭇개비 : 낭깨기
- b. 물소리 : 물소리
 들길 : 들짚, 드르짚
 달빛 : 돌뵤
 일손 : 일쑤
 자물쇠 : 즈물췌, 종글췌
 발자국 : 발짜국
 갈대 : 골대
 칼자루 : 칼쯔룩
 말소리 : 뭍소리 (馬)
 말소리 : 말소리 (言)
 밭길 : 밭짚
 동굴속 : 기열쑤
 물속 : 물쑤
 날서다 : 놀쓰다
 말숨씨 : 말쑤씨
- c. 봄바람 : 봄뵤뵤 (ex) 봄뵤뵤 크게 불업져.
 밤길 : 밤짚
 숨소리 : 숨쏘리
 바람소리 : 뵤뵤소리 (ex) 뵤뵤소리도 췌췌한다.
 힘줄 : 심쭈 (ex) 손뽕어리에 심쭈이 과췌.
 사람속 : 사릅쑤
 숨기척 : 숨끼척
 금줄 : 금쭈
- d. 췌가 : 췌빠위
 보릿단 : 보리단
 뵤동산 : 뵤동산

햇별 : 해뵤
 화로불 : 화린뵤
 어젯밤 : 어제뵤 (ex) 어제뵤 지뵤서.
 뱃사람 : 뵤싸름
 노랫소리 : 노래쏘리
 핏줄 : 뵤쥬
 전뵤출 : 전뵤쥬
 촛불 : 초뵤, 최뵤
 콧등 : 코뵤어리, 콘뵤
 여우길 : 여우궐
 췌소리 : 췌쏘리
 귀속 : 귀쥬, 귀꼬망
 고기가시 : 궤기까시
 깃발 : 기뵤
 젓가락 : 궤까락
 보리짚 : 보리궤, 보리궤
 조짚 : 조궤, 조궤
 고치가루 : 고치궤루
 김치국 : 궤치궤, 궤끼궤

e. 산줄기 : 산궤기
 논바닥 : 논뵤닥
 손수건 : 손쥬건
 산길 : 산궤
 산불 : 산뵤
 안주인 : 안쥬연
 손등 : 손뵤얼
 손등어리 : 손뵤거리

(22.a)는 복합어 경계를 사이에 두고 /ə/를 후행하는 받침이 硬音化하는 예이고, (22.b)는 /l/ 뒤에서의 硬音化, (22.c)는 /m/ 뒤에서의 硬音化, (22.d)는 복합어 경계를 사이에 두고 받침을 後行하는 받침의 硬音化, (22.e)는 /n/을 후행하는 경우의 硬音化이다.

이 영기⁷⁾는 複合語 경계에서의 硬音化를 t-Epenthesis가 生成되어 成立된다고 하여 그 규칙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phi \rightarrow t / [+son] \text{ --- } \mathcal{L} \left[\begin{array}{l} + \text{ cons} \\ - \text{ tense} \end{array} \right.$$

(漢字語境界硬音化規則의 적용 不可能한 複合語 경계에서 t가 삽입된다).

7) 김영기 : op. cit. pp.163 ~ 164.

濟州南部語 또한 複合語境界에서의 硬音化는 t-삽입이 이루어지고 t는 閉音化하며 그 뒤에 硬音化가 生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過程에 따른 硬音化現象의 도출 過程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㉒	/čoθ + sori/	/twi + toθ san/	———— 기저음운 표시
	čoθsori	twittoθ san	t 삽입 규칙
	čoθt' sori	twit' toθ san	폐음화 규칙
	čoθt' s'ori	twit' t'oθ san	경음화 규칙
	čoθs'ori	twit'oθ san	어간말 자음탈락 규칙
	[čoθs'ori]	[twit'oθ san]	———— 음성표시

그러나 다음과 같이 複合語境界에서 非硬音化現象을 볼 수 있다.

- f. 곱가슴 : 곱가슴
 뱀대가리 : 배엿대가리, 배미 대가리
 봄가을 : 봄고을
 사람손 : 사름손

- g. 소다리 : 쇠다리
 새소리 : 생이소리
 비바람 : 비번롬, 비바름
 여기저기 : 이디서디
 호랑이등 : 호랭이등
 개고기 : 개고기
 오리발 : 오리발
 채소밭 : 누물밭

- h. 논밭 : 논반
 손쉽다 : 손습다
 빈밭 : 빈반

(f,g,h)와 같이 복합어에서 非硬音化現象⁸⁾은 先行語가 [+animate]를 指稱하는 말일 경우 後續語와의 音韻論的 連結은 대체로 밀접하여 硬音化가 잘 일어나지 않고 [-animate]를 지칭하는 말과 연결될 경우 生成된다는 意味論的 觀點에서 보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 複合語를 構成하고 있는 원말 사이에 主從關係가 없는 並列複合語에서는 硬音化現象이 잘 生成되

8) 이강훈 : 國語의 (複合)名詞에서의 硬音化現象, 「언어」 7-2, pp.299 ~ 321.
 Jacobs, Rosenbaum: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p.60.
 이응백 : 國語의 濃音化現象, 「이하운 回甲記念論文集」, p.405

지 않는다는 意味論的 高찰도 다시 한번 吟味하고 넘어 가야할 시사점을 주고 있다.
漢字語形態素 境界를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硬音化는 ㉔와 같다.

㉔ a. 國家 : 국가
百姓 : 백성
各家庭 : 각 가정
雜收入 : 잡수입
各地方 : 각 지방
職場 : 직장
俗談 : 속담
學校 : 학교, 학교, 렉교
急死 : 급사
合同 : 합동
削感 : 삭감
惡條件 : 악조건

b. 文法 : 문법
單科大學 : 단과대학
簡單하다 : 간단하다
蒼庫 : 창고
上秩 : 상질
人件費 : 인건비
成果 : 성과
憲法 : 헌법
商法 : 상법
終點 : 종점
點數 : 점수
嚴格 : 엄격
人權 : 인권
危險性 : 위험성
人間性 : 인간성
共通性 : 공통성
優秀性 : 우수성

c. 絕對 : 절대
密使 : 밀사
密集 : 밀집
發達 : 발달

物資 : 물자
 出身 : 출신
 一生 : 일생
 發動機 : 발동기
 日誌 : 일지
 決定 : 결정
 實情 : 실정

d. 不可 : 불가
 失脚 : 실각
 末伏 : 말복
 實費 : 실비
 折半 : 절반
 發見 : 발견
 出兵 : 출병
 物價 : 물가
 物件費 : 물건비
 失格 : 실격
 定札價 : 정찰가

e. 時價 : 시가
 高價 : 고가
 內科 : 내과
 條件 : 조건
 下質 : 하질
 外科 : 외과
 招待狀 : 초대장
 物理科 : 물리과
 都賣價 : 도매가
 小賣價 : 소매가
 肥大症 : 비대증

漢字語는 하나하나가 한 單語이므로 原則的으로 二字以上으로 된 漢字語는 合成語이어서 앞에서 論한 複合語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漢字語의 硬音化를 再論하는 것은 固有語와 다른 特殊한 現象이 있기 때문이다.

(24.a), (24.b), (24.e)는 複合語에 준하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으나, (24.c)에서와 같은 漢字語의 경우, /l/ 終聲을 가진 漢字는 다음 漢字의 初聲이 /t, s, ʃ/ 등 [+coronal]이면 이들 硬音化시키며, (24.d)처럼 /k, p/ 등 [-coronal]이면 硬音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l/ 終聲 다음의 初聲을 硬音化하는 것은 一律的이라 할 수 없으나 [+coronal]이 오면 硬音化가 반드시 生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이를 규칙화하면 아래와 같다.

$$(25) \begin{bmatrix} -son \\ +cor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asp \\ +tense. \end{bmatrix} / l \text{ sino}^{++} \text{ ______}$$

(설측음 l 뒤 한자어 경계를 두고 舌頂性的의 자질을 가진 ㅍ음이 오면 硬音化한다)

위 規則이 가능한 것은 歴史的 觀點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즉 漢字音의 /ㄹ/ 終聲은 /t/ 終聲에서 變化된 音으로 東國正韻에서는 이를 /-ㄹ/으로 表示하고 있다. 이로 보아 漢字音 /ㄹ/ 終聲은 /lʔ/에 가까운 음이므로 /ㅎ/에 의한 후두 폐쇄가 硬音化를 生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反面 김 영기는 漢字語에서 /l/終聲 다음에 오는 [+coronal]은 [+t-Epenthesis] 라는 形態的 資質을 가지고 있으며 [-coronal]은 [+t-Epenthesis]의 자질을 갖지 못한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24,a)와 같이 [-coronal]이 硬音化하고 있는 例에서 많은 例外 事項이 있어 그 原因究明에 있어 研究되어야 할 問題이다.⁹⁾

앞의 (25)에 의해 /l/終聲 다음에 나타나는 硬音化를 도출하면 (26)과 같다.

(26)	/čal:tæ/	/il:či/	—————	기저 음운 표시
	čal t tæ	iltči		t-삽입 규칙
	čal t' tæ	ilt'č'i		폐음화 규칙
	čal t' t'æ	il t'č'i		경음화 규칙
	čal t'æ	il č'i		자음군 단순화 규칙
	[čal t'æ]	[il č'i]	—————	음성 표시

V

濟州地域語의 語頭硬音化形成은 他地域語에 比하여 特異하며 他方言群보다 많은 語辭들의 頭子音이 硬音化되고 있음을 본다. 이들의 語頭硬音化의 發生은 단순한 音韻論的인 側面에서 해결 될 것이 아니고 形態論 또는 意味論的인 側面과도 關聯이 있어 一律的으로 規則化하고 고찰하기

9) 이강훈 (1976) : 國語의 複合語 및 漢字語 內部에서 일어나는 硬音化現象, 「논문집」 5호. (서울여대).

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歷史的 變遷을 거쳐 表面上으로 정착된 것이고 이 地域語의 特異한 音韻現象의 하나임으로 그 例를 살펴 보겠다.

- ㉞ a. 가물가물 : 까물까물
 거뭇거뭇 : 꺼뭇꺼뭇
 땡땡 : 땡땡
 덜적덜적 : 떨적떨적
 반질반질 : 뵤질뵤질
 번쩍번쩍 : 뵤쩍뵤쩍
 절절 : 쪼쪼
 졸졸 : 쪼쪼
 싱긋 : 썩긋
 자그만치 : 짜그만치
 다시 : 따시
 자세히 : 쑤쑤히
 급자기 : 꺼자기
- b. 소나기 : 췌내기주제, 쑤나기, 췌나기
 번데기 : 뵤데기, 고조리
 쇯소리 : 췌쑤소리
 짚단 : 쪼단
 스물 : 쑤물
 금줄 : 꺼줄
 두름성 : 두름췌
 과사무실 : 꺼사무실
 쇯덩어리 : 췌땡어리
 가격 : 꺼격, 꺼격
 값 : 꺼
 가락지 : 꺼락꺼
 고기가시 : 꺼기꺼시
 갈대 : 꺼대
 개차반 : 꺼차반지
 본새 : 뵤새
 살(熬) : 췌
 살문 : 췌문
 소띠 : 췌혜치
 속(裏) : 쑤꺼, 꺼
 속병 : 꺼땡
 속잎 : 쑤입

- 숨쉴 : 숨쉴
 쇠기풀 : 췌아기, 췌기
 쇠(鐵) : 쇠
 쇠고리 : 췌골리
 순돌 : 선돌, 설돌, 쓸돌
 시부모 : 씨부모
 시아버지 : 씨아방
 시어머니 : 씨어멍
 시아주머니 : 씨아지방
 시동생 : 씨동승, 씨동생
 시집 : 씨집
 시집살이 : 씨집살이
 실(絲) : 실
 실거리나무 : 실거리낭
 실꾸리 : 실도로기, 실꼬리
 실뜨기 : 실뒤쓸락, 실까락, 실떼기
 실밥 : 실밥, 실팍
 실패 : 실패
 심지 : 섬지
 조끼 : 췌끼, 췌끼
 짚 : 췌, 췌
 짚가리 : 췌늘, 췌늘
 짚뭇 : 췌뭇, 췌뭇, 췌뭇, 췌뭇
 짚방석 : 췌방석, 췌방석
 짚신 : 췌신, 췌신, 췌세기
 티끌 : 떠끌, 뜨끌, 등끌
 가치(價値) : 까치
 금줄 : 금줄
 본보기 : 췌, 췌보기
 속것 : 속웃
 시앗(첩) : 씨앗, 씨앗
 상늬 : 쌍늬
 순가락 : 췌갈, 췌가락
 잎 : 췌
 대잎 : 대췌
 c. 자르다 : 췌르다
 닦다 : 따르다
 부수다 : 췌사다

세다 : 썩다
 자르다 : 찢르다
 슬다 : 쓸다, 싸다
 시원하다 : 씨원허다
 시집가다 : 씨집가다
 실금가다 : 썰금가다
 가늘다 : 깨늘다, 꼬늘다, 꺾늘다
 조그만하다 : 쪼쪼락허다
 구슬리다 : 꾸슬리다
 돌리다 : 툐리다, 또리우다
 들러메다 : 뚜러메다
 빗다 : 뼈지다
 사납다 : 싸무랍다
 속다 : 쑥다
 속주다 : 쑥주다
 다물다 : 따물다
 닭는다 : 딱근다
 달인다 : 딸인다
 성내다 : 썩내다
 생생하다 : 썩썩허다
 속타다 : 쑥타다
 본받다 : 뽐받다

대체로 中部方言에서는 부사에서 特히 의성어, 의태어에서 語頭硬音化가 많이 生成되고 있는데, 濟州地域語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27 b),(27.c)에서 보듯이 名詞와 用言의 경우까지 그 많은 分布를 보이고 있다.

이 때 硬音化의 對象音韻은 /k/ > /k' /, /p/ > /p' /, /t/ > /t' /, /s/ > /s' /, /č/ > /č' / 등 다섯 개의 音韻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 實現範圍나 環境的制約에 의한 規則을 生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또 이들 音韻의 대립이 辨別的機能을 보이지 않아 이 地域語에 있어서도 語頭硬音化의 實現은 決定變異라기보다는 隨意變異의 性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또한 濟州地域語에서만 볼 수 있는 ㅈ音, ㅊ音이 硬音으로 使用되고 있는 特異한 音韻變化를 볼 수 있다.

- ㉞ a. 엉금엉금 : 엉씩엉씩
 머리카락 : 머리카락
 부싷깃 : 불적
 비껴서다 : 비껴사다, 비껴스다

- 비키다 : 비끼다
 실켜다 : 실뵈다
 추키다 : 추끼다
 켜다 : 썩다
 핫길 : 한절
 들이켜다 : 들이쓰다, 들이썩다
 불끈 : 불쩍, 불촉
 미끄럽다 : 민떡하다
 불길 : 불절
- b. 김치 : 짐끼, 짐뀌
- 던져버리다 : 데껴불다
 던지다 : 데끼다
 뒤집다 : 뒤쓰다
 뒤집어놓다 : 뒤싸놓다
 준득준득 : 끈작끈작, 끈닥끈닥
 착그르다 : 짹그르다
 찰 : 꼭
 줘덩굴 : 꼭줄, 꼭쭈
 침 : 꿈
 헤치다 : 헤쓰다
 삐침 : 비깍
 고치다 : 고썩다
 부치다 : 부썩다
 짓다 : 지꾸다, 주꾸다
- c. 도투마리 : 도꾸마리
- 무디다 : 무끼다
 박박털다 : 북북떨다
 안틀다 : 안뜰다
 터럭 : 꺼럭
 무디다 : 무끼다
 까다롭다 : 까까롭다
 두텁다 : 두껍다
 틀리다 : 뜰리다
 같은 값에 : ㄹ쁜 까베
 티끌 : 떠끌
 기특하다 : 기뜰하다
 달다 : 더꾸다

달아 걸다 : 더깁증그다
 벨다 : 바끄다
 실다 : 시끄다
 불다 : 부뜨다
 갈다 : 마뜨다, 마뜨다

- d. 펴푸 : 뽀뽀
 거품 : 거꿈, 게꿈
 각피 : 각며
 물리다 : 쫓리다
 덮으니 : 더끄니
 어두워 : 어두거
 었다 : 어꾸다
 덮다 : 더끄다
- e. 지스래기 : 찌끄래기
- f. 힘줄 : 썸썰

(28,a)는 연구개음 /k, k^h/가 다른 系列의 硬音으로, (28, b)는 硬口蓋音 /č, č^h/가 다른 系列의 硬音으로 (28,c)는 舌端音 /t, t^h/가 다른 系列의 硬音으로, (28,e)는 /s/가 다른 系列로, (28,f)는 성문음 /h/가 다른 系列의 硬音으로 變化한 音韻現象이다.

(28,a)의 몇 개의 例에서 나타난 “ε>π”, “z>π”, “č>π” 등의 k-口蓋音化, (28,f)의 h-口蓋音化를 除外하고는 一律的으로 硬音化되고 있음을 본다.

이 층은 (28,d)의 <더뜨니-더끄니>, <어두워-어두거>를 <p-g>의 對立, <p'-k'>의 對立으로 보았다. 어떻든 그 音韻規則은 몇 개의 例를 除外하고는 生成하기가 어렵지만 육지어에 비하여 이 硬音化現象의 多樣性은 特異한 現象임에 틀림없다.

이들 硬音化의 對象音韻이 같은 系列의 硬音이 아니고 그 變化의 類型이 多樣하여 그 實現規則을 生成하기는 너무 難點이 많으며 단지 歷史的 發達過程의 結果와 기후 즉 바람에 의한 청각 영상의 강화에 의한 強意化의 結果인지 그 結論을 추출하기 어렵다.

다음은 中世語의 例와 現在 濟州地域語에 나타난 硬音現象을 몇 개의 語彙을 中心으로 比較하려 한다.

28	<15c>	<육지어>	<濟州語>
a.	것그다(折)	꺾다	걱끄다 (ex) 누물똥 걱깁오랑.
	쇠아기(樓)	쇠기	쇠역
	섯다	셋다	섯다, 시치다 (ex) 누물강 시저오라, 누물 시성오라.

쏟다	쏟다	소든다
개고리	개구리	개고리, 가개비, 가가비
그스다	긱다	그스다 (ex) 그시라, 그서불라.
끓다	끓다	키다 (ex) 바글바글 키염저.
덜다	젓다	지다 (ex) 방에 지라.
가마괴	까마귀	가마기, 가매기
갓그다	깎다	각끄다, 각다 (ex) 머리 가깡오라, 머리 가삼오라.
겹질	겹질	걱쪽 (ex) 낭걱쪽, 늬뻬걱쪽
긱	긱	고장
긴	근	근, 곶 (ex) 곶 매라.
더르다	짧다	즈르다, 쫘르다 (ex) 치매도 쫘르라.
버국새	뻬국새	버국생이, 벅궁생, 뻬국새
석다	썩다	석다
달다	달다	달다
꼭지	꼭지	꼭지
가치	까치	간치
가락지	까락지	가락찌, 까락찌
곶다	곶다	곶다
ㄴ스라기	까끄라기	ㄴ스락, ㄴ시락
썩	썩	숙
솔보리	쌀보리	솔보리, 솔오리
좏다	쫘다	좏다
쌀개	쌀개	슬개
끓다	끓다	괴우다, 편다
겨플	겨플	저플, 겨플
더르다	찌르다	질르다
떡다	적다	직다
빙다(撒)	뿌리다	베다

b. 그르다(解)	끄르다	클르다 (ex) 쫘라맨저 클러불라.
긱(終)	긱	긱, 매기
불휘	뿌리	뿌리 (ex) 낭뿌래기, 낭뿌리
사호다	싸우다	싸오다 (ex) 싸웁저.
소다	쏘다	쏘다
긱다	긱다	긱다 (ex) 빈네 꼬즈라.
더르다	찌르다	찌르다 (ex) 저봄으로 썰러 보라.
삭	씩	새썰, 새순
스다	쓰다	쓰다 (ex) 감티 싸우라.
다히다	매다	매다 (ex) 불매라, 굴묵 지르다.

두에	뚜겅	뚜깅이
눈섭	눈쌌	눈쌌
빚곶	배곶	배또롱
손벽	손뻑	손뻑
꼴득	팔뚝	꼴득
꼴뎡	팔쌩	꼴쌩
긱고리	꺾꼬리	꺾꼬리
구송	꾸중	꾸질미
더르다	잡다	짜르다, 쫄르다
스다	쓰다	씨다, 쓰다
사홀다	셀다	셀다
구짓다	꾸짓다	꾸짓다
씹다	쌌다	쌌다

(2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 c에 ㅍ音의 語辭가 嶺南에서 硬音으로 變하였으나 濟州地域語에서는 그대로 ㅍ音의 音聲資質을 유지하고 있어 言語變遷의 保守性を 띄고 있다. 그러나 (29,b)의 많은 語辭가 硬音으로 化하고 또 語頭子音의 硬音化, ㅍ音 激音이 他系列의 硬音으로 變하는 사실 등을 볼 때 言語變遷의 進取性 또한 강함을 볼 수 있다. 이들 硬音化의 傾向은 Gillieron이 말한 方言周圍說의 現象을 그대로 保存하고 있으면서도 그 保守性和 進取性的 양 면을 提示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日本의 言語學者인 服部四郎¹⁰⁾이 論한 다음 글은 濟州地域語의 硬音化現象의 實相을 잘 要約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日本語의 과거를 추측하기 위하여 方言이 研究되어 왔으나 邊方의 言語가 반드시 古代語가 아니요, 때로는 中央語보다도 더 새로운 것이 있어 邊方語의 方言에서 日本語의 未來를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 濟州地域語의 硬音化는 그 歷史성에 立脚한 保守性的의 殘存을 維持하던서도 그 進取性에 있어서도 嶺南어에 비하여 (中部方言) 훨씬 앞선 變遷을 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VI

앞에서 論한 글의 內容을 要約함으로 그 結論을 삼으려 한다.

1) 濟州島南部語에서 ㅍ音을 先行하는 閉鎖音이 있는 경우에 그 閉鎖音은 子音 中和 規則에 의하여 閉音化됨으로써 後行하는 ㅍ音을 硬音化시키고 있다. 그 규칙은 아래와 같다.

10) 김형규: op. cit. pp.65 ~ 78. 재인용.

$$\begin{bmatrix} + \text{ cons} \\ - \text{ son} \\ - \text{ tense}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 \text{ asp} \\ + \text{ tense} \end{bmatrix} / [- \text{ rel }] \text{ ---}$$

2) 平音を 先行하는 音が 非閉鎖 저해음 또는 활음 /h/인 경우 이러한 音が t-代替規則에 의해 閉鎖音 /t/로 代치되고 이 /t/는 脣音화 규칙에 의해 /t̚/로 變化함으로 後行하는 平音を 硬音化시키고 있다.

3) 비저해음 뒤에서의 硬音化現象은 單一形態素에서 強烈하게 生成되고 있다.

4) /n/, /m/ 어간 뒤에서의 硬音化가 活潑히 生成되고 있으며 그 과정은 語幹未子音脫落, t-삼입, 閉音化에 의해 生成되며 이것을 規則化하면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 \text{ cons} \\ - \text{ son} \\ - \text{ tense}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 \text{ asp} \\ + \text{ tense} \end{bmatrix} / [\text{ nas }] \& \text{ ---}$$

5) 冠形詞形 /-ㄴ(을)/ 다음에서의 硬音化現象도 一般的이다. 이를 규칙화하면 아래와 같다.

$$\begin{bmatrix} + \text{ cons} \\ - \text{ son} \\ - \text{ tense}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 \text{ asp} \\ + \text{ tense} \end{bmatrix} / l = \text{ ---}$$

6) 비저해음 뒤에서의 複合語의 硬音化는 t-삼입으로 나타나 閉音化의 過程을 거친다.

7) 漢字語의 硬音化는 複合語의 경우와 同一하나 l 경계를 두고 [+coronal]의 資質을 가진 장애음은 硬音化하고 있다. 그 규칙은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 \text{ son} \\ + \text{ cor}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 \text{ tense} \\ - \text{ asp} \end{bmatrix} / l \text{ sino} \text{ ---}$$

8) 語頭硬音化는 名詞, 用言의 경우까지 生成되고 있어 陸地語에서보다 發展的이다.

9) 平音, 激音의 硬音化現象은 多樣하다. 그러나 이들 硬音의 對象音韻이 같은 系列의 硬音이 아니어서 그 實現規則을 生成하기는 難點이 많으나 強意化의 實現인 듯하다.

10) 15c 語辭와의 比較에서 15c의 形態를 유지하고 있는 語辭들이 殘存함은 그 保守性的의

結果인 듯하다 그러나 他語群들의 硬音化現象으로 볼 때 文化的 影響으로 그 強度를 더해 갈 것이다.

- 11) 濟州地域語의 硬音化는 中部方言에 비해 훨씬 앞선 音韻變化의 過程임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서울대出版部.
 (1962), 「國語史研究」, 서울:一潮閣.
- 李崇寧(1960), 濟州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論叢」, 서울:東洋出版社.
- 玄平孝(1961), 「濟州島方言研究」, 第1輯, 서울:精研社.
- 石宙明(1947), 「濟州島方言」, 서울:서울新聞社出版部.
-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 田相範(1980), 「生成音韻論」, 서울:塔出版社.
 (1976), 現代國語에 있어서의 된소리 現象, 「언어」1-1, 한국 언어학회.
- 李康勳(1982), 國語의 (複合)名詞에서의 硬音化現象, 「언어」7-2, 한국 언어학회.
 (1976), 國語의 複合語 및 漢字語 內部에서 일어나는 硬音化現象, 「논문집」5호(서울여대)
- 黃圭直(1980), 韓國語에서의 硬音化現象, 「人文科學論叢」12輯(건국대).
- 崔泰榮(1981), 全州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全北大).
- 김영기(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서울:탑출판사.
- Martin, Samuel E., (1954),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Schane, S.A. (1973), *Generative Phonology*, Prentice-Hall.
- Clarence Sloat and others (1978), *Introduction to Phonology*, (N.J.: Prentice-Hall).

Tensing of Lax Consonants in Southern Chejudo Dialect.

Kwang Woong Kim

In Southern Chejudo dialect the stops become unreleased by the rule of the Consonant Neutralization when they are followed by the lax consonant. This unreleasing sound causes the lax consonant to be tense.

If the non-stop obstruent or glide /h/ precedes the lax consonant these sounds become /t/ by t-substitution rule, and this /t/ sound changes to become /tʔ/ sound by the Unreleasing Rule. And finally this /tʔ/ sound makes fortition the following lax consonant.

The fortition of the lax consonant is obviously revealed in a single morpheme when the non-obstruent precedes the lax consonant.

When the stem of the verb ends in /n/ or /m/, the fortition of the lax consonant occurs by the order of the following rule application: i) Consonant Deletion, ii) t-insertion, and iii) Unreleasing Rule.

The fortition of the lax consonant is generally shown after the qualifying verb-ending /-ɪl/ In compounds, the fortition is strongly revealed after the non-obstruent.

The fortition of the Sino-Korean is the same in compounds above, but the obstruent sounds with [+coronal] feature become fortis after the /l/ sound.

The fortition in word initial position is also to be found in nouns and declinable words, which is more general than that of the mainland.

The fortition of the lax consonant and aspirated consonant is various, but it is hard to generalize. This fortis is only used when the speaker intends to intensify his words.

When compared with the words used in the 15th century, there are a number of words which maintain their old forms.

The fortition in Chejudo dialect is more considerable than that of the middleland dialect.